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대행, 인사권 남용 논란

직무능력 부족 이유 팀장 2명 직위해제 '시끌'

3배수 사장 추천서 기재부 접수 안해 의혹도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가 장기간 사장 대행체제로 인해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행 체제 속에 2명의 팀장이 직무 수행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되면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장 공모를 거쳐 다음달인 8월 추

천 예정자 3명이 선정됐으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임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공기관임원운영위를 2차례 개최했으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측이 고의적으로 사장 인선을 지연시키기 위해 서

류 접수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항만공사는 지난 7월17일부터 31일까지 사장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위가 서면 및 면접심사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뒤 8월6일 기재부 공공기관임원운영위에 추천서를 접수했다고 밝혀왔다.

항만공사 측은 "추천할 예정이었던 3명 가운데 1명이 갑자기 의사를 번복해 접수하지 못했음"이라며 "조만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장 후보 1명을 포함해 기재부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사장 대행 체제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 9월과 이달 초 2명의 팀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직위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위해제된 두 팀장에게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 실한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하도록 돼 있는 인사규정 47조가 적용됐으나 조직 내부에서는 사장 직무 대행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권중수 사장 직무대행은 "원활한 공사 운영을 위해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조직 목표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직장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인사위가 결정된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내년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시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팀장급 인사 2명의 직위해제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직원은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광양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장이 없어 공사 내 혼란만 초래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이상조 전 사장은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군과 보성예명원의 찾아가는 차 문화교실에서 우리 차 문화를 배우는 수강생들.

보성녹차 우수성 알리고 茶道 홍보

'찾아가는 차 문화교실' 성료

보성군과 보성예명원이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차 문화교실'이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교육을 위해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보성군 등은 지난날 14일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강남구, 평택시 북부전투사령부 미군기지, 경기 고양, 경북 상주, 대구 북구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30차례에 걸쳐 모두 750여명에게 보성녹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평택에서는 미군 등을 포함해 군 장병에게 우리의 차와 예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군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찾아가는 차 문화교실'은 지난 6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소재 초·중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다례교실'에 전문성을 더해 범위를 확장,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주민들도 교육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성예명원 박근희 원장은 "우리나라 차문화와 보성차를 전국에 알리고자 수년간 전국 각지를 방방곡곡 교육했으며 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차 수요의 확대와 보성차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여수시 '최우수'

상금 7500만원 수상

여수가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6일 여수시는 "전남도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한 '2013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사업 추진 결과 최우수 지자체 수상과 함께 상금 7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2013년 이전 체납액인 '과년도' 이월 체납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별 목표액을 정하고 목표 달성율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총 143억7000만원 중 60억3000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48억원을 초과한 125.6%의 실적을 달성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여수시는 이호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액 징

수대책반을 구성, 개인별 징수목표제를 정해 목표액 초과달성을 이뤄냈다.

징수대책반은 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예금입류와 추심 등 체납처분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등의 가능한 행정제재 방안을 총동원했다.

특히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646명의 급여입류를 통해 5억7000만원을 추징하고, 신용카드매출채권 입류로 275명에게 7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노란 물감 뿌린듯... 털머위꽃 만발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 미평동 봉화산 산림욕장 주변에 노란 '털머위꽃'이 최근 만발해 가을 행락객을 설레게 하고 있다.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인 '털머위꽃'은 주로 비닷가 근처에서 잘 자라

<여수시 제공>

철새 먹이공급·쉼터 제공

생물다양성 농지 점검

순천시시는 6일 "내년 3월까지 2013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신청 농지 340ha에 대해 계약 이행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순천만을 찾는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휴식처 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철새들이 증가하는 순천만은 6일 현재 흑두루미 511마리, 재두루미 2마리, 큰고니 8마리, 오리 5천 마리 등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찾아와 생태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달 25일까지 신청 받은 423농가 1849필지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북

전주 한글테마거리 인기

전주교대앞 서학로 1km구간 교육명소로 각광

전주교대 앞 서학로 1km 구간에 조성된 한글테마거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6일 "내년 초 국립무형유산원 개관을 앞두고 먼저 공개된 한글테마거리가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한글마당과 옛 전통과학기구마당, 소리마당으로 구성돼 있는 한글테마거리에는 최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들이 자주 찾아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교육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한글마당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한글로 쓰인 공취팔귀전 그리고 훈민정음의 용자례(초상, 중상, 종상 순서를 명시하고 실제의 사용사례 설명) 합자해 등이 새겨져 있다. 전통과학기구마당에는 동양해시계, 해시계, 측우대, 앙부일구, 수표, 혼천의, 천상 열차분야지도 등 7개 종류의 조선시대 제작된 과학기구가 실물모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동양해시계는 12지 동물문양을 캐릭터로 만든 해시계로서 12개의 원형

기둥 위에 12지 동물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기둥 위에는 동물의 성격과 특징이 설명돼 있어 유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 해시계 중앙에는 날짜판이 있어 해당 날짜에 서 있으면 바닥에 그림자가 저서 현재 시간을 알아볼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입구 쪽에는 세계의 언어가 새겨진 삼지공원이 있으며, 여기서는 자동으로 세계의 언어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교육 명소로 알려지면서 한글테마거리에는



전주교대 앞 서학로 1km 구간에 조성된 한글테마거리가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 40~50여명 어린이들이 나들이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전주교대는 학교 정원(과교라시실)과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다.

유재갑 아트플러스디자인관은 "국립무형유산원 개관과 특색거리 조성으로 한옥마을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들이 한옥마을과 연계돼 새로운 관광루트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고창보건소, 다문화가족 결핵 이동검진

고창군보건소는 9일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5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이동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협조를 받아 대화실 홍보 엑스선 및 객담 도말검사 등 결핵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 이동검진 차량에서 실시된다. 검진결과 결핵의심

자로 판정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결핵으로 확진된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 치료 및 추구관리 받게 된다. 군보건소는 결핵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결핵관리 담당자가 복약 및 부작용 상담, 완치까지 필요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정음 차 페스티벌' 3만여명 다녀가

'제2회 정음 차 페스티벌'이 2013 가을축제로 어우러져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내장문화광장 옆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정음자생차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차가 선보여 모두 3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특히 문화공연, 무료 시음회, 도자기 및

차이야기 그림 전시, 차 관련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면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성기 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함께 어우러져 서로 신뢰를 쌓아 정음 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새 음식명인 공개 모집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 도시인 전주시가 전주음식 명인 1차(간념민·가족회관)에 이어 새로운 명인을 찾는다.

시는 6일 "오는 21~25일 전주시에서 식품업 등을 하는 사업자와 가족, 맛대결을 펼쳐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반 시민 및 음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50명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조리 심사를 거쳐 12월께 전주음식 명인을 지정, 1000만원의 장려금과 현음식인 등을 대상으로 명인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해당 음식분야 20년 이상의 조리경력과 일



국창 김소희 선생 유품전

국창 김소희 명창의 딸 박윤초 명창이 기획한 89점,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80여점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사진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만정 김소희 선생의 생전 모습.

고창판소리박물관이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근현대 여성명창으로서 판소리 최고봉으로 국창으로까지 불렸던 만정 김소희 선생(1917~1995)의 유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김소희 명창의 제자 이명희 명창이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고창군에 기증한 유품

<고창군 제공>

정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성황

경남 이명진씨 싸움소 우승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일간 내장산문화광장 농경문화체험센터 인근 특설경기장에서 열전을 펼친 제17회 정음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서 경남 함안에서 출전한 이명진씨의 싸움소가 각 체급별 우승을 싹쓸이 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유명 싸움소 140두가 참가한 가운데 백두급(771

kg~851kg)에서는 '백두', 한강급(671kg~770kg)에서는 '미소', 태백급(600kg~670kg)에서는 '강패'가 각각 우승을 차지해 상장과 트로피와 함께 600만원과 500만원, 400만원의 시상금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모두 12만 여명이 다녀간 이번 대회에서는 우직한 한우들이 불꽃 비는 힘과 기술의 맛대결을 펼쳐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반계 재해피해예방 예산 50억 확보

순창군이 쌓치면 반계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5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6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반계마을 57가구 157명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습 침수피해 해소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토사유출 방지시설

3개소 설치와 기존배수로 647m를 확장정비하고 627m를 신설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반계마을은 집중호우 시 마을 뒤 임야와 농경지 토사가 유출 배수로에 퇴적돼 추월천 수위가 상승하고 배수 불량에 가중돼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해 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10일 장구축제 '섬진강 문화 예술제'

섬진강 600리길 중 가장 아름다운 가을풍경으로 널리 알려진 장구목 일원에서 제2회 섬진강 문화 예술제가 오는 10일 열린다.

'섬진강 나무에 바람이 부누나'란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섬진강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한 송만규 화백의 그림과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시, 그

리고 류명철 농악인의 작품을 따라 걷는 '시와 그림 그리고 소리길 걷기'를 통해 섬진강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화 그리기와 낙엽과 꽃잎을 활용한 압화 체험 및 경연대회도 열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